

퀘벡주 응급실 여의사 자살에

의료계 충격



퀘벡주 그랜비의 한 젊은 여성 응급의사가 자살함으로써 캐나다 의료계에 충격을 주었다.

어린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35세의 카린 디온 박사는 지난 1월 초 자살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COVID-19 전염병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사니 박사는 “그녀의 가족과 남편은 이 대우행의 최전선에서 보건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 죽음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팬데믹 가운데 최전방의 의료진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손실, 외상,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담을 경험했다고 도사니 박사는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응급의사를 대표하는 국가 기구인 캐나다 응급의사 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탈진률은 약 86%로 추정된다.

대상자의 약 14%는 응급 의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살을 생각했고, 이 의사들 중 거의 6%가 지난 해에 자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전투 참전 노병

헬리팩스 한글학교에 5천달러 기부



캐나다군이 가장 많이 희생됐던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인 마이크 리케츠(Mike Ricketts, 91세)씨가 최

근 노바벨리한글학교에 후원금 5천달러를 기부했다고 노바벨리한글학교가 전했다.

노바벨리한글학교는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 있는 작은 한글학교다. 학생수가 23명에 불과하다.

노바벨리한글학회(회장 이윤희)에 따르면 노바스코샤주에 남아 있는 4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중 한 명인 마이크 리케츠씨는 한국 정부나 동포재단의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글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노바벨리한글회는 노바스코샤주 참전용사들에게 블루베리를 전달하는 등 매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캘거리 교회 공중명령 불구

대면 예배 강행

캘거리 한 교회가 보건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나도 COVID-19 규정을 계속 어기고 대면 예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알버타 보건국(AHS)은 지난 일요일, 이 목사가 건강 검진 명령과 벌금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공공 보건 규정을 무시한 뒤 어기도록 계속 장려한 후, 해당 남동부 캘거리 교회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팀 스티븐스 목사는 수요일 페어뷰 침례교회 신도들에게 보낸 e-메일 뉴스레터에 자신이 캘거리로부터 공중위생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2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는 이 규정을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루었다. 나는 벌금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 지침과 같이 교회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거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 제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사는 덧붙였다.

캘거리에는 현재 5,000명 이상의 COVID-19 활성 환자가 있으며, 37,000명 이상이 회복되었고 407명이 사망했다. 캘거리의 R-값은 1.02로, COVID-19에 감염된 각 사람이 평균적으로 다른 한 명보다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붐비는 예배당, 마스크도 없다

알버타 보건국의 한 직원은 조사 결과 약 75명의 참석자 중 두 명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목사와 교회 직원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있었다.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접촉면이 높은 표면을 청소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직원은 월요일에는 구



두로, 화요일에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교회에 내렸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교회가 공중보건 제한 하에서 허용된 수용력을 계산하고 화재 코드 수용력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 거리 제한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노출된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게시물.

위험 완화 계획을 작성하여 AHS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는 그 명령들을 금요일까지 수행해야 한다.

폐쇄 명령이 내리진 것은 아니지만, 공공보건법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공중보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권고가 주어졌다.

관할 경찰은 일요일에 교회에 페어뷰 침례교회 가서 알버타 보건국의 지시사항을 돕도록 요청받았다고 확인했다.

보건국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부 알버타 주민들이 공중 보건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교회를 상대로 추가 벌금이나 명령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배 장소는 폐쇄 명령이나 벌금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 종교 행사는 현재 공중 보건 제한에 따라 운영될 수 있지만 다른 안전 조치와 함께 직접 출석을 위한 소방지침에 따른 공간 점유율은 15%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업체는 알버타 최고 의료 책임자의 명령을 항상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알버타 보건국이 밝혔다.

일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설교에서는 목사는 물론 신도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 단체들도 우려 표명 페어뷰 커뮤니티 협회는 일요일 이날 해당 교회 담임 목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회와 교인들의 행동에 대한 이사회와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경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페어뷰는 다양한 배경과 믿음을 가진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사장 Regan Klym이 서명한 공문을 발표했다.

페어뷰 지역 협회는 보건



조기유학생 출신 김호준

(18)군이 연방총독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각 학교가 성적이 가장 우수한 졸업예정자에게 주는 것으로 김군은 옥밀스 칼리지에이트고교에서 12학년 평균 97.5점을 받았다.

2008년 유학은 김군은 현재 토론토대 컴퓨터 엔지니어

링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입학 장학금으로 7,500달러를 받았다.

장래 희망에 대해 김군은 “아직 잘 모르겠다”며 “대학 공부를 하며 차차 파악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은 한국에서 개인사업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 대학 봉쇄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간호사들 조사



온타리오 주 런던 건강과 학센터에 속해 있는 온타리오 간호대학은 봉쇄조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캐나다 간호사 두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봉쇄를 반대하는 간호사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여성 간호사들이 군중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토론토에서 16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고 밝힌 시라는 캐나다 정부의 봉쇄정책을 반대한다고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얼마 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노인들에게 해를 끼칠 거리는 우려

에 의해 장기요양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방문객을 금지하는 행위는 ‘인간애를 역행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간호사대학이 밝힌 또 다른 연설자 크리스틴은 온타리오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으며 시위에서 “마스크와 장갑 및 합성약물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수는 전체 인구수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봉쇄조치가 터무니없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 관계자들은 그간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을 단

순히 사망으로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증가하는 감염자를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과중되는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타리오의 많은 병원에서 감염자의 증가로 인해 안, 장기 이식, 심장 문제 등 기타 심각한 질병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동영상이 퍼지자 대학은 두 여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더 이상의 진행상황과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CTV뉴스를 통해 전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조사 결과는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은 지난 11월에도 온타리오에서 열린 마스크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런던건강과학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무급휴가 중이다. 센터는 그녀가 병원의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 시기에는 특히 의료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간호사는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크다”며 “따라서 전파력이 큰 소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의료진의 견해는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의 건강 지침에 따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허용한 후에도 교회에서 더 이상 집회를 열지 않을 것을 지시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웃 주민들과 페어뷰 주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을 보호할 모델 행동과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계속 무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알버타의 현재 공중 보건 제한은 1월 21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버타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디나 힌소 박사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